

지난해 6월 부도를 내 업계에 충격을 안겨주었던 가나안이 힘겨운 회사 살리기 투쟁 끝에 지난 4월 7일 화인통상에 전격적으로 인수됨으로써 또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이에 본지는 화인통상에 인수되기까지의 과정과 현황,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가나안측 협상 대표였던 이진구 총괄사업본부장에게 듣는다.



가나안을 인수한 화인통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어떤 업체이며 인수 경위는?

무역 업체다. 대구지역을 기반으로 한 식품 수입 및 제조 회사로 양금류와 쌀과자 등을 취급하고 있다. 원래 충남유통이었으나 지난 2월 화인통상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며, 쌀과자를 취급하는 만큼 베이커리와 닭은점이 많았던게 이번 인수의 계기였던 것 같다.

부도 후 남양유업과 인수 마무리 단계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인통상과 결실을 맺게 된 배경은...

사실 남양유업과는 가계약 상태까지 갔었으며 인수 문제로 지난해 12월까지 10번 정도 접촉했다. 그러나 천안과 안양 2개사 중 천안의 가나안식품만 인수하려 했으며 결정적으로 인수금액 등 요구 조건이 맞지 않았다. 그동안 회사를 구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인수 후 직원의 신변 보장과 체불 임금 해결, 안양 가나안제과와 천안 가나안식품 공동 인수가 우리측의 요구였는데 화인통상은 이를 수용했다.

지난해의 부도 원인과 액수, 화인통상의 인수 조건은 무엇이며 채무 등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알려진 대로 천안 공장의 80억원 투자가 원인이다. 안양 90억원, 천안 60억원 총 153억원이 부도액인데 이는 지점의 보증금 반환 예정 액수까지 포함된 것으로 이를 제외한 실부도액은 130억원 수준이다. 화인통상의 인수금액은 93억원으로 인수 조건은 앞서의 직원 신변 보장, 체불 임금 해결, 천안과 안양 양사 공동 인수였다. 부도 후 직원의 급여가 7개월이나 밀려 있었으나 인수 당시 그동안의 자체 노력으로 2개월분만 밀린 상태였으며 화인통상의 인수로 해결됐다. 외부의 부채 역시 채권단과의 접촉을 통해 일정 기간 내 상환될 것으로 알고 있다.

부도로 타격이 컸을 텐데 앞으로 경영 체제는 어떻게 되며 현재 조직 정비 단계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지난 4월 18일 취임식을 가졌다. 황영철 회장을 필두로 안양은 강성수, 천안은 심준섭 대표 체제로 운영될 것이다. 7월 정도면 어느 정도 정상화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도 후 사업이나 이미지 면에서 타격이 컸다. 따라서 이미지 쇄신이 요구된다. 우선 광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지점장을 대상으로 조만간

지점장 회의를 개최해 회사의 향후 사업 방향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천안은 '가나안베이커리'로 상호를 바꾸었으며, 안양도 곧 새로운 브랜드명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정상화 계기를 마련했는데 앞으로 어떤 사업 계획을 추진해 나가리라 보는가?

천안은 베이커리, 안양은 유통에 치중된 사업 전개가 전망된다. 부도 이전부터 천안 공장은 전국적인 판매망 구축의 전진 기지였기 때문에 식빵 및 빵 등 베이커리 쪽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앞으로 점포 개설도 천안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한편 현재 케이크 및 선물류, 건과류 생산 라인이 남아 있는 안양 공장은 이런 일부 베이커리와 OEM 방식의 제품, 군납, 그리고 생수 유통 사업을 담당하리라 본다. 따라서 올해 천안은 매출 130억원, 점포 보유수 200개, 안양은 매출 70억원, 점포 보유수 30개로 사업 계획을 설정했다. 

거듭나는 가나안 베이커리

'안양은 유통, 천안은 베이커리에 주력할 계획'

이진구 <가나안제과 총괄사업본부장>